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사순절 제2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8(통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냉기가 한결 약해진 봄바람이 부는 이때에 대지의 못 생명들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 위에도 하늘의 바람을 보내 주셔서 혼곤한 욕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깊은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정의와 인륜의 법도와 바른 권위의 지표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밝은 빛이 되사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7:15
♠ 교 독 문	124. 사순절(2)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대표기도	I. 박경선 집사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12(통34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성경봉독	I. 눅22:24-27
	II. 신8:11-18
찬 양	박석희 집사
말 씬	I. 어떤 소원
	손성현 전도사
	II. 초점을 바로잡을 때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찬 송	소원	장성호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하나님을 놓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작음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며 살아온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인생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부여받은 생명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삶을 경축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 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임원민 집사	기도 : 오현정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홍선희 집사

3월	영접위원	김인걸 홍순구 박규석 안홍숙 박경선 오자영
	헌금위원	한완식 박홍재(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권정생 선생님

예배를 드리고 권정생과 함께 인근 고운사로 가 경내를 거닐었다. 산책 중에 “시골 마을에서도 이제 모두 새집 지어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 집도 1983년에 120만원이나 들여서 지은 집이라며 면에서 알려준 공시지가를 보니 89만 원밖에 안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을 할머니들이 나더러 죽기 전에 그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쓰라고 한다”고 했다. 종지기 때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본 할머니들이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소리였을 것이다. 그와 함께 경내 벤치에 앉았다. 그를 위해 잠시 기도를 했다.

“권 선생님이 몸이 아프지 않고 편하게 눈을 감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언제나 수줍은 듯 말도 잘 하지 않는 그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해 깜짝 놀랐다. 얼마나 늘 몸이 아팠으면…….

그 쓸쓸한 오두막에 누울 그를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오던 내내 가슴 한 편이 아려왔다. 수줍음이 유난히 많았던 그의 얼굴을 보면 약자로 살며, 늘 약자를 사랑했던 몽실 언니가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 자신이 몽실 언니였다. 아동작가로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기에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50년 전이나 60년 전과도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다 갔다. 나가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MBC ‘느낌표’ 출연도 거부했고, 모든 상의 수상도 거부했다.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다급함에 허덕이는 세상에서, 그는 한 길이나 자란 풀이 덮인 마당을 오가며,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그렇게 살았다. 누군가는 그를 성자라고 한다. 그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까요?”라며 “나는 절대 자신 없다”고 고백했다.

한 달에 채 몇 만 원도 쓰지 않았던 그는 “하루치 생활비 외에 넘치게 쓰는 것은 모두 부당한 것”이라며 “내몫 이상을 쓰는 것은 벌써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생전에 인세로 들어온 돈을 꼬박꼬박 모아 모두 후세에게 돌려주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평생 모은 5,000만 원으로 옥수수를 사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권정생은 세상을 뜨기 전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1. 최완택 목사, 민들레 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눈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2. 정호경 신부, 봉화군 명호면 비나리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3.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변호사로 알려졌다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두세 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 번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게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세 때 22세나 23세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일 쓴 사람 권정생

■ 마/음/으/초/워/는/글

장공 김재준의 열 가지 신조

1.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2. 대인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3. 최저 생활비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4.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5.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요”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6. 평생 학도로 산다.
7.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8. 사건 처리에는 반드시 건설적, 민주적 질서를 밟는다.
9.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다룬다.
10.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시내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조병무	송양진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김준우	김근종	정옥영	김신옥	김윤수	박상호
김정섭	김중수	이순정	김희진	박홍재	박애순	박영희	방민배	배상순
권호진	백요현	안종일	정현주	오재환	오진훈	노순옥	윤영원	이선희
윤미경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정미경	임영	정경례	정복순	조관행
홍선희	곽다빈	박경원	방준	박옥식	정한구	왕영순	전세종	오정숙
전혜리	허신열	김경연	원효숙	지윤미	장예원	송동준	김진경	

월정헌금:

김남중	오복순	김미순	김영한	이희균	김종문	지명주	김중철	고영애
문금석	박범희	박미영	서정순	왕수명	이재문	윤주원	최윤선	이봉배
이동천	이소순	장재영	김재영	전영규	김경수	정두리	하현철	최성애
김시영	오재환	한성건	김정민	김영순	윤여민	임보람	백혜성	최동운
박찬정	김용대	박정숙	이수정	배재경	이경남	이중현	권순	윤정화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윤석철	장혜숙	김인걸	문영혜	조관행	홍선희	곽상준
최경미	박제동	방민	전혜리	배상순	권호진	문금석	이나래	전세종
오정숙	이인섭	정희선	김용진	박효선	김현진	오진훈	노순옥	김필순
윤재석	무명							

생일감사헌금: 김지운 정환수

녹색꿈 헌금:

전혜리 장재영 김재영 임보람 이재문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김중수
이순정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합수회	김정섭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정복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조병주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춘려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실하게 절기순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늘 오후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 **성서학당** : 봄학기 성서학당이 이번 주 12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4. **속회심방** : 봄철 속회심방을 시작합니다. 속장님들은 심방전도사님과 일정을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행** : 이번 주 14일(토)에 청파산악회에서 예봉산(남양주)으로 등산을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전 8시 40분, 용산역 국수행 중앙선 승강장으로 9시 10분, 팔당역으로 10시 1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절전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형광등, 온풍기 같은 전기 기구들은 꼭 끄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시온 속 (다음 주 : 엠마오 속)

* 설거지 봉사 : 이정현 박권동 (다음 주 : 박병구 김기성)

새교우 소개

이강인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